

‘문화연구’를 통한 문학연구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고찰*

김 성 곤
(영문과 교수)

1. ‘문화연구’의 배경과 속성

‘문화연구 Cultural Studies’는 그동안 고급문학 정전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온 ‘문학연구’에 도전하여, 대중문학 텍스트와 대중문화 텍스트까지도 포함하는 보다 더 포괄적인 문학연구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등장한 최근 문예사조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연구’는 기본적으로 반모더니즘적이고, 반고급문화적이며, 반귀족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문화연구’가 60년대 이후 탈중심주의와 탈권위주의를 주창하며 문단과 학계에서 부상하기 시작한 일련의 진보주의적 및 대중주의적 움직임-예컨대 탈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해체이론, 다문화주의, 신역사주의, 문화적 유물론 등-과 동일한 맥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

‘문화연구’는 영국의 좌파 지식인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최근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스스로의 경직된 도그마의 벽에 부딪친 마르크시즘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주었다. 과연 ‘문화연구’의 강령인 “대중문화에 대한 새로운 조명”은 시의 적절했고 마르크시즘의 기본 정신과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연구’는 마르크시즘의 한계를 초월해, 보다 더 포괄적인 시각과 안목으로 문학과 문화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중산층과 지식인들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독자층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문화연구는 신역사주의 New Historicism와 문화적 유물론 Cultural Materialism에는 대체로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 Raymond Williams와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의 영향을 받아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신역사주의와 문화적 유물론은 인문주의를 비판하며, 학문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구분을 해체한다는 점에서는 진보주의적이지만, 아직도 헤겔적 총체성과 이성중심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이다. 예컨대 신역사주의나 문화적 유물론은 모든 것을 동일선상에 놓아 단일하게 파악하며,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해석이나 의미산출이 가능하다고 믿음으로써, 텍스트와 사회구성체의 상이한 시간성과 역사성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역사주의와 문화적 유물론에 대한 ‘문화연구’의 비판은 Antony Easthope, *Literary into Cultural Studies*(London: Routledge, 1991), pp.119~123을 볼 것.

‘문화연구’는 현대 영국 지성의 두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F. R. 리비스 F. R. Leavis (또는 매슈 아놀드 Matthew Arnold)와 레이먼드 윌리엄스 Raymond Williams의 전통 가운데, 윌리엄스의 정신을 좇는 학자들이 모여 만든 사조라고 할 수 있다. 고급문화의 옹호자였으며 문학의 특권을 인정했던 리비스나 아놀드와는 달리, 윌리엄스는 대중문화의 옹호자였으며 특권적 문학보다는 보편적 문화의 중요성을 주창했던 사람이었다. 윌리엄스는 소수 특권층의 귀족문학을 인정하지 않고 대중문화를 사회발전의 기본으로 보려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문학을 지배계급과 상류계층의 전유물로, 그리고 문화를 피지배계급과 중하류계층의 담론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윌리엄스의 한계는 그가 문학/문화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설정한 후, 후자인 문화에만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결국 문학을 배제하는 또하나의 이항대립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문화연구’는 윌리엄스의 기본 정신을 따르되, 윌리엄스처럼 문학과 문화를 별개의 것으로 상정하지 않고 문학을 문화 속에 포함시켜 파악하려는 태도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문화연구’는 윌리엄스와 더불어 톨랑 바르트의 문화 기호학을 포용한다. 바르트는 모든 대중매체 속에 숨어있는 기호를 찾아내어 당대의 문화를 읽어내는데 누구보다도 예리하고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문화연구’는 바르트의 바로 그러한 판독력과 통찰력을 빌어 대중문화 속의 기호를 해독하고 당대의 문화적 특징을 파악하려고 한다. ‘문화연구’가 복합적인 시각과 전략을 갖게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다.

그러므로 ‘문화연구’는 문학 텍스트 속에서 당대의 문화를 읽고, 문화 속에서 문학 텍스트를 찾아낸다. 그리고 문학연구의 지평을 확대해, 그것을 보다 더 포괄적인 ‘문화연구’로 확장한다. ‘문화연구’가 그동안 전통적인 문학연구에서는 제외되었던 대중문학 텍스트들을 포함하고 포용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문화연구’는 물론 문학 텍스트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화, 비디오, 텔레비전, 음악, 그림, 광고, 팝송 같은 일상의 대중문화 텍스트들도 문화의 일부로 간주해 마치 문학 텍스트처럼 그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문화연구’가 편협한 고급문학연구 보다는 광범위한 ‘문화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연구’는 최근 전통적인 문학 연구의 영역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그것은 고급문학과 대중문학 사이의 갈등과 화해, 문학 정전의 문제, 교과과정 개편 문제, 영상매체의 효용성, 시청각 텍스트의 수용 등, 앞으로 철저히 논의되고 검증되어야만 하는 많은 문제들을 수반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연구’는 과연 문학연구의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문학연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인가? 만일 그것이 문학연구의 방향을 바람직하게 돌려놓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것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문학교수들과 문학자들은 그러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해나가야할 것인가? 이 논문은 바로 그러한 의문점들을 천착하고 성찰해보기 위한 한 시도로 쓰여졌다.

2. 정전과 비정전

‘문화연구’는 크게 두가지 것—즉 “제도화된 정전문학”과 “전통적 인문주의”에 반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도화된 정전문학”은 우선 모더니즘과 신비평시대에 확립된 “위대한 책들 great books,” “걸작/명작 masterpiece,” 또는 “문학 정전 literary canon”을 의미한다. 소수의 모더니스트들이나 신비평가들에 의해 제도화된 이 ‘정전’들은 그동안 문학연구의 중심에 자리잡고 앉아, 주변부로 밀려난 비정전 텍스트들을 효과적으로 배제시키고 침묵시켰다. 그 결과, 대학의 교과과정은 소위 공식적인 정전들로 가득차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강의실에서 연구되고 논의되는 작품 역시 정전에 제한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까지 학자들과 학생들은 그 정전을 과연 누가 정하고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²⁾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선별과정에 혹시 소수의 주관적 판단기준이 작용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마치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간수와 죄수, 의사와 환자, 또는 문명과 광기의 이분법적 서열과 거기 개입되는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깨닫지 못했듯이, 문학자들과 문학도들은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위대한 ‘정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뿐 아무런 회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³⁾

물론 정전을 제도화한 사람들은 선별작업에 참여한 소수의 능력과 감식안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리비스의 문학관을 잘 나타내주기 때문에 즐겨 인용되는 『대중 문명과 소수

- 2) “누가 진리를 결정하는가?”하는 것은 그동안 당연시해왔던 지배문화의 여러 제도와 담론에 회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최근 문예사조들의 공통적 의문이다. 그와같은 질문은 Donald Barthelme의 소설 “Me and Miss Mandible”에서도 반복되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 Joseph은 반복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 Who decides?”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물론 진리를 결정하는 것은 “당국”이고, Joseph은 그러한 결정의 유효성에 도전하고 저항한다.
- 3) 최근 그와같은 추세에 힘입어, 예전에 성서를 만드는 작업시 『경외서』로 분류되어 제외된 텍스트들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주어지고 있다. 그것은 물론 정전에서 배제된 비정전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다. 얼마전에 나온 레슬리 피틀러의 저서 『정상의 독재』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정상(정전)이 그동안 얼마나 부당하게 비정상(비정전)을 억압하고 차별하며 배제해왔는가를 생체윤리학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신체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환자 등이 정상인, 어른, 젊은이, 의사/간호사에게 받는 억압과 차별을 논의하고 있다.

Leslie A. Fiedler, *Tyranny of the Normal: Essays on Bioethics, Theology & Myth*(Boston: David R. Godine, 1966). 특히 title essay인 pp.147~155를 볼 것.

Thomas Pynchon의 *The Crying of Lot 49* 역시 바로 그러한 새로운 인식—즉 The Master Text(정전)의 부정과 수많은 복사본 및 sub-texts(비정전)들의 인정—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는 그와같은 문제를 정규유표와 위조유표의 모티프를 통해 제시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우편제도의 정부독점에 대해 한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 공식적인 우편제도를 통해 서로 교류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문화 *Mass Civilization and Minority Culture*』의 다음 구절은 소수 엘리트의 특권의식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In any period it is upon a very small minority that the discerning appreciation of art and literature depends: it is (apart from cases of the simple and familiar) only a few who are capable of unprompted, first-hand judgment. They are still a small minority, though a larger one, who are capable of endorsing such first-hand judgment by genuine personal response.

어느 시대에나 예술과 문학에 대한 분별있는 감식안은 아주 극소수만이 갖고 있다. 그들은 (단순하고 낮은 경우는 별도로 하더라도) 신중하고도 직접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개인적 반응을 통해 그러한 직접적인 판단을 승인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비록 그보다 더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소수이다.⁴⁾(Leavis, 1974, pp.3~4)

리비스의 위 언급의 근원에는 물론 예술가 특유의 상상력과 인지력과 깨달음을 인정했던 낭만주의적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리비스에 의하면, 문화나 예술이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의 엘리트들이고, 따라서 그들의 특권적 문화 공간에는 “대중”이 존재할 자리가 없다. 그에게 있어서 대중문명이란 고급문화와 대조되는 다만 저급하고 조야한 무시대상일 뿐이다. 평범하고 무지한 대수의 대중은 그저 소수의 엘리트가 정해놓은 판단기준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⁵⁾

소수의 재능있고 감식력있는 사람들이 선별해놓은 정전이 절대적인 권한과 특권을 갖게되

4) F. R. Leavis, *Mass Civilization and Minority Culture*(London: Falcroft Library Editions, 1974), pp.3~4. 예컨대 이 부분은 Antony Easthope의 *Literary into Cultural Studies*(London: Routledge, 1991)의 3~4면에도 인용되어 있다. 필자는 이 짧은 소책자를 Brigham Young University의 Harold B. Lee Library에서 빌려서 읽어보았는데, 앞부분의 위 인용이 Leavis의 소수 엘리트관 및 고급 문화관을 가장 잘 집약해주고 있다고 생각되어 인용하기로 했다.

5) 고급문학과 고급문화를 존중하는 그러한 영국적인 태도는 소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영국소설에서는 고급문화를 대표하는 지성인 엘리트 남성들이 아름답고 품위있는 여자들의 인기를 얻는 반면, 미국소설에서는 대중적이고 거친 남자들이 여자들의 사랑을 얻는다. 미국소설에서 지식인들은 대개 무능력하고 동성애적이며 정치적 급진주의자들로 묘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소위 고급문화에 속하는 작가들 역시 은밀히 대중문학으로부터 즐거움과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더 포괄적인 논의는 다음 문헌에 나와있음.

Harriet Hawkins, *Classic and Trash: Traditions and Taboos in High Literature and Popular Modern Genres*(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0), pp.xiii, xvii를 볼 것.

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정전은 그동안 문학연구의 공식적인 연구대상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와 동시에 소수 특권층의 감식안에 의해 정전에서 제외되어 주변으로 밀려난 비정전 텍스트들과 대중문학 텍스트들은 영원히 문학연구의 영역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 소수 재판관들의 편견이나 당파나(비록 그들이 스스로의 ‘보편성’을 주장하고는 있었지만) 오판의 가능성 같은 것은 철저히 무시 되었다.

소수 엘리트들의 정전 선정 작업에는 물론 선별 기준이 있었다. 그들은 정전에는 ‘상상력 imagination’과 ‘통일성 unity’이 들어있는 반면, 비정전 텍스트에는 그것들이 부재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분히 낭만주의적이고 모더니즘적인 그 두가지 속성의 ‘있음과 없음’의 판정은 사실 처음부터 대단히 주관적이고 임의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폴릿지적 ‘상상력’과 신비평적 ‘통일성’에 대한 강조는 각각 ‘저자의 특권’과 ‘텍스트의 자체충족성’을 강조하게 되어 문학연구와 작품해석의 영역에서 독자를 제외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정전의 제조자들이었던 모더니스트들과 신비평가들이 정전과 비정전 텍스트들을 구분할 때 사용했던 보다 더 구체적인 접근방법은 소위 ‘모더니즘적 책읽기’였다. 앤토니 이스트호프의 이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1. 작품 속에서 진지한 주제와, 그 주제를 드러내는 상징들, 그리고 전체적인 통일성을 찾는다.(신비평적 태도)
2. 인간과, 인간이 세상과 갖는 관계에서 어떤 통일된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낸다.(구조주의적 태도)⁶⁾

모더니스트들이나 신비평가들은 위와같은 접근법이 정전에서는 가능하지만 대중문화 텍스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대중문화 텍스트에는 진지한 주제도, 상징도, 통일성도 없으며, 인간과 세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찰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그러한 ‘모더니즘적 책읽기’가 과연 타당성을 갖고있는 것인지, 그리고 비정전 텍스트들이나 대중문화 텍스트들은 정말 주제도 상징도 통일성도 없어서 ‘모더니즘적 책읽기’가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하는 두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박하겠지만, 사실 ‘모더니즘적 책읽기’는 그 두가지 문제 모두에서 제동이 걸리며,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우선, 지난 50년대까지 강력한 패러다임으로 평단과 강단을 점거해온 신비평적 접근법—즉 상징과 아이러니의 고찰을 통한 통일된 주제의 발견—은 신비평에 반발해 등장한 수많은 현대문학이론들에 의해 이미 그 유효성을 상실했다. 사실 오늘날의 문학이론들은 작품 속에서 통일된 주제를 찾으려는 시도 자체를 무효화시켰으며, 그 대신 독자와 시대에 따라 변화

6) Jonathan Culler, *Structuralist Poetics*(Ithaca: Cornell UP, 1975), p.115와 Easthope의 *Literary into Cultural Studies*, p.16을 볼 것.

하는 ‘해석의 무한한 가능성 infinite possibilities of interpretations’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해석이 다 유효하게 되었으며, 주제의 ‘비통일성’이 오히려 각광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둘째, 비정전 텍스트나 대중문화 텍스트에는 상상력과 통일성, 또는 상징과 주제가 없다는 모더니즘적/신비평적 주장 역시 소수 귀족주의자들의 독단적인 편견이라고 볼 수 있다. 말을 바꾸면, 비정전 텍스트나 대중문화 텍스트에도 얼마든지 상상력이나 상징이나 주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전과 비정전, 또는 고급문학과 대중문학의 차이란 다만 그와같은 장치들을 얼마나 ‘낮설게’해 놓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고급문학은 상징이나 주제를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도록 모호하고 ‘낮설게’ 해놓은 반면, 대중문학은 그와같은 것을 보다 더 평이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낮설게 하기’ 기법과 문학의 본질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문학의 본질은 낮익은 것들을 낮설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조나산 컬러 Jonathan Culler의 말대로, 신문기사도 마치 시처럼 배열해 놓으면 문학적 책임기를 유발할 수 있고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낼수 있는지도 모른다.⁷⁾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문학과 비문학의 차이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주장한 ‘낮설게 하기’ 기법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한번도 회의하거나 그 유효성을 심문해보지 않고, 그것을 마치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있다. 말을 바꾸면, ‘낮설게 하기’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비엘리트 대중들을 문학의 영역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한 효과적(만일 의도적이 아니라면)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혹은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낮설게 하기’는 필연적으로 고도의 상징을 요구하며 그 고도의 상징은 또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와같은 과정이나 요소가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석의 목적은 원래 ‘낮설은 것들’을 ‘낮익은 것들’로 바꾸어놓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낮익은 것들’을 굳이 ‘낮설게’ 만들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낮설게 하기’의 복합적인 의미는 접어둔 채, 굳이 이렇게 짓궂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선의의 강령이라도 정치적인 악용이나 이념적 암시로부터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러시아 형식주의가 갖는 모더니즘과 신비평과 구조주의와의 상관관계를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모더니즘과 신비평과 구조주의는 그 ‘낮설게 하기’의 기법을 심분 활용해, 저자와 비평가에게는 절대적인 권위를 그리고 텍스트에게는 자체충족성 self-sufficiency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밥 애슐리 Bob Ashley는 『대중소설 연구 *The Study of Popular Fiction*』란 책에서, 사람들은 “접근할 만한가 accessible” 그렇지 않은가로 고급소설과 대중소설을 구분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다만 근거없는 편견이거나 경솔한 판단일 뿐이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그는 사

7) Jonathan Culler, *읽 책*, p.162. Easthope, *읽 책*, 16에서 재인용.

람들이 대중소설 연구 자체도 대중소설처럼 접근할만하고 쉬운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The study of popular fiction is the serious examination of material widely dismissed as trivial and there is a tendency to assume that such study is in some way 'easy'. At a frivolous level, easy because the fiction is short and undemanding. More seriously, easy because popular texts are 'accessible' and students allegedly respond in terms of their own experience far more readily and vividly than they would respond, say to a novel of 'substance' by George Eliot or D. H. Lawrence. Valid as this may be of individual responses to particular texts, as a statement about popular forms in general it will not do.

대중소설 연구는 사소하다는 이유로 널리 푸대접 받아온 대상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하는 작업인데, 사람들은 그러한 연구가 어떤 면에서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박한 차원에서의 의미는, 대중소설들이 짧기 때문이고 또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좀 더 진지한 차원에서의 의미는, 대중 텍스트들은 '접근할 만하고' 그래서 학생들도 그것에 대해, 조지 엘리엇이나 D. H. 로렌스의 '본격적인' 소설의 경우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생생하게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반응한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특정 텍스트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에 있어서는 그러한 생각이 유효할는지도 모르지만, 대중소설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로 보면 그건 틀린 생각이다.⁸⁾(Bob Ashley, 1989, p.1)

그렇다면 본격소설은 낯설고 해석을 필요로 하며, 대중소설은 쉽고 접근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단순화된 선입관이나 편견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 그와 동시에, “접근할 수 없는 것”에는 경의를 표하고, “접근할만한 것”은 경시하는 태도 자체에도 속물적이고 귀족적인 취향이 엿보인다. 셋째, 정전 텍스트에는 “인간과, 인간이 세계와 갖는 연관”이 있지만, 비정전 텍스트나 대중문학 텍스트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주장 역시 별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텍스트는—그것이 정전이건 아니건 간에—결국 인간에 대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인간과 세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주장은 우선 텍스트에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어떤 공통의 규칙이 있고 그와같은 규칙은 책읽기를 통해 드러난다는 구조주의적 신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문학이란 궁극적으로 보다 더 나은 도덕적 인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인문주의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텍스트를 관통하는 어떤 규칙이나 구조를 찾는 작업은 흔히 개체의 특성과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고, 텍스트에서 도덕과 윤리를 찾는 인문주의적 태도는 비도덕적이라고 생

8) Bob Ashley, *The Study of Popular Fiction: A Source Book*(London: Pinter Publishers, 1989), p.1.

각되는 것들을 억압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흔히 사람들은 인문주의 Humanism가 왜 위험하고 억압적인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서구의 인문주의는 문학의 목적이 보다 더 나은 인간을 만들어 내며, 신사와 기독교인을 길러내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문주의는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물론 그 취지 자체는 하나도 나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소위 서구의 인문주의적 휴머니즘은 전통적으로 소수의 상류층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고급문화와 자유와 특권을 정당화시키고 저속한 하류층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향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어왔다. 그리고 그 결과, 인문주의는 그동안 순수 고급문화만을 옹호하고 대중문화를 무시하며 억압해온 대표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아왔다.⁹⁾ 또 인문주의는 그동안 인간을 우주와 만물의 중심으로 생각해왔는데, 그와같은 관념 역시 얼마전부터 도전받기 시작했다. 인간은 만물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우주를 이루는 일부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최근 새로운 문학회론들이 ‘인문주의의 위기,’ 또는 ‘휴머니즘의 위기’를 주창하며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바로 그러한 탈인간중심주의적 맥락에서 이다.

3. 대중문화와 ‘수정된 모더니즘적 책읽기’

‘문화연구’는 바로 그러한 소수 엘리트 문화의 헤게모니에 반발해,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다수 대중문화의 중요성을 주창하며 등장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문화연구’는 고급문화/고급문학의 폐지를 주장하고, 대중문화/대중문학 텍스트를 정전의 자리에 대신 갖다 놓으려 하지는 않는다. 만일 단순한 자리바꿈만을 시도한다면, 이번에는 대중문화/대중문학 텍스트가 정전이 되어 ‘문화연구’ 역시 종래의 ‘문학연구’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연구’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그리고 고급문학과 대중문학을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고 고찰하는 새로운 종합적 연구를 주창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또한 역사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을 동시에 포용하려 함으로써, 종래의 마르크시즘의 이분법적 가치판단을 유보한다. 예컨대 다음 인용은 상대편을 문학적이고 형식주의적인 반동으로 몰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역사화하려는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을 비판하는 ‘문화연구’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Marxists likely to want to historicise everything while rejecting any other approach as regressive, literary and—in a word—formalist. I think this is how the

9) 예컨대 20세기 초에 등장했던 신인문주의 New Humanism는 그 한 구체적인 예가 된다. 당시 하버드대의 Irving Babbitt를 중심으로 주창되었던 인문주의는 저속한 마르크시즘이나 급진적 이데올로기에 대해 고급문화를 수호했던 대표적인 보수주의 사조가 되었다. 여기에는 Henry James를 추종하며 The Genteel Tradition에 속하던 소설가들과 극작가 Thornton Wilder 등이 속했다. 신인문주의에 대한 당시 좌파작가였던 Michael Gold의 비판은 유명하다.

new study should not be done. And the positive alternative put forward may well appear shocking, for I will urge that in the way we think and teach the relation between the historical and signifying practice, analysis and response to form should come first……Clearly, new developments must do two things: take up cultural analysis within an international and not simply a national perspective; direct itself impartially at high cultural texts as well as those from popular culture, eroding the distinction by crossing the boundary.

…마르크시스트들은 모든 것을 역사화하려고 하는 반면, 다른 접근들은 모두 퇴행적이고 문학적이며—한 마디로 “형식주의적”이라고 거부한다. 나는 새로운 연구는 그런 식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긍정적인 대안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충격적으로 보일런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가 역사적인 실천과 의미화 실천의 관계에 대해 사고하고 가르치는데 있어서 형식에 대한 분석과 반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새로운 발전(문화연구)은 두가지를 행해야만 한다. 첫째, 단순한 국가적인 시각이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으로 문화 분석에 임하고, 둘째, 고급문화 대중문화 텍스트들과 대중문화 텍스트들을 똑같이 공정하게 대하며, 그 둘의 경계를 넘어 차이를 부식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¹⁰⁾ (Easthope, 1991, pp.107~108)

이스트호프의 위 주장이 양분법적 가치판단과 서열을 해체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화연구’가 기본적으로는 좌파이면서도 해체이론이나 탈구조주의나 포스트모던적 시각과 전략을 폭넓게 차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문화연구’가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러 독자층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연구’는 대중문화 텍스트들을 고급문학 텍스트들과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같은 비중으로 연구하기를 제안하면서, 그 구체적인 연구방법의 하나로 ‘수정된 모더니즘적 읽기’를 추천한다. 그것은 곧 고급문학 텍스트들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텍스트도 기본적으로는 ‘모더니즘적 읽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을 바꾸면, 대중문화 텍스트에서도 얼마든지 중요한 상징과 주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 ‘문화연구’가 고급문화의 심미적 영역이나 ‘모더니즘적 읽기’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론 이 때의 ‘수정된 모더니즘적 읽기’는 고급문학 텍스트 읽기 때와는 그 목적이 다르다. 대중문화 텍스트를 ‘수정된 모더니즘적 읽기’로 읽을 때에는 그 목적이 작품의 통일성을 찾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어져있는 각기 다른 다양한 주제들과 의미들—때로는 상충되고 모순되기도 하는—을 찾아내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문화 텍스트의 ‘수정된 모더니즘적 읽기’는 다분히 기호학적이고 탈중심적이고 해체적이라고

10) Easthope, 앞 책, pp.107~108.

할 수 있다.

‘문화연구’는 대중문화 텍스트에 대한 그러한 ‘수정된 모더니즘적 읽기’의 한 좋은 예를 롤랑 바르트에게서 발견한다. 예컨대 바르트는 ‘문화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신화들 *Mythologies*』이라는 저서에서, 한 잡지의 표지를 문화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속에 숨어있는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And here is another example: I am at the barber's, and a copy of *Paris-Match* is offered to me. On the cover, a young Negro in a French uniform is saluting, with his eyes uplifted, probably fixed on a fold of the tricolour. All this is the meaning of the picture. But, whether naively or not, I see very well what it signifies to me: that France is a great Empire, that all her sons, without any colour discrimination, faithfully serve under her flag, and that there is no better answer to the the detractors of an alleged colonialism than the zeal shown by this Negro in serving his so-called oppression. I am therefore again faced with a greater semiological system: there is a signifier, itself already formed with a previous system(a black soldier is giving the French salute); there is a signified(it is here a purposeful mixture of Frenchness and militariness); finally, there is a presence of the signified through the signifier.

여기에 또하나의 예가 있다. 이발소에 갔는데 주인이 내게 『파리-마치』지를 건네 주었다. 표지에는 프랑스 군복을 입은 젊은 흑인이 아마도 삼색기의 기폭을 바라보는 듯 눈을 들어 올려다보며 거수 경례를 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 표지의 드러난 모든 의미였다. 그러나 나이브하거나 말거나 간에, 난 그것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즉 프랑스는 위대한 제국이며, 프랑스의 아들들은 피부색에 관계없이 국기에 대해 충성을 바쳐 봉사한다는 것, 그리고 프랑스의 식민주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소위 자신을 억압한다는 것을 위해 봉사하는 이 흑인의 열성보다 더 좋은 답변은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한번 더 커다란 기호체계와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엔 이미 이전의 체계(프랑스식 경례를 하는 흑인병사) 속에서 형성된 시니피앙이 있었고, 시니피에(프랑스적인 것과 군대적인 것의 의도적인 혼합)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니피앙을 통한 시니피에의 존재가 있었다.¹¹⁾(Barthes, 1973, p.116)

비슷한 경우는 탈식민주의 postcolonialism 비평가인 스티븐 슬레만의 「제국의 기념비들: 탈식민적 글쓰기의 알레고리와 반언술행위」에서도 발견된다. 슬레만은 영국 식민지였던 뉴

11) Roland Barthes, *Mythologies*(New York: Hill and Wang, 1972), p.116. 여기에서 인용된 Barthes의 글 중 일부는 비록 Easthope의 *Literary into Cultural Studies*에서도 인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필자의 *Mythologies* 읽기의 소산임을 밝혀둔다.

사우스 웨일스(지금의 오스트레일리아)의 초대 총독 아서 필립의 동상에 내제되어있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다음과 같이 읽어낸다.

동상의 필립경은 화려한 무사복 차림인 채, 사각의 사암(砂岩) 기둥위에 탑처럼 솟아있었고, 펼쳐보이고 있는 문서를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기라고 하듯이 그의 오른 쪽 발과 손은 앞으로 뻗어져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상의 중간 쯤에 머물면, 네 귀퉁이에 총독의 절반 정도 크기의 고전시대 인물들이 눈에 띄었을 것이다. 그들 중 둘은 남성이고 둘은 여성이었는데, 모두 옷을 입고는 있었지만 먼 옛날 고대의 험거운 옷과 몸이 많이 드러나는 튜닉을 입고 있었다. 또한 그들의 이름을 금각으로 새긴 글씨가 눈에 띄었는데, 삼지창을 든 턱수염을 기른 사람은 넵툼 Neptune, 그의 우측에 비스듬이 있는 여자는 커머스 Commerce, 그녀 옆에 있는 인물은 사이클롭스 Cyclops(그러나 이 용감하게 보이는 인물은 그 두눈과 영리한 모습으로 보아 아마도 오딧세이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양을 어루만지고 있는 여자는 애그리컬처 Agriculture로 명명되어 있었다……그러나 만일 그 동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 서있지 않았더라면, 동상 기둥의 가장 낮은 층(거기에는 분수와 돌고래 상이 있었는데)에 있는 네 개의 작은 장식 널판지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 각각의 장식 널판지에는 별거벗은 원주민 사냥꾼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들은 어떠한 언어에 의해서도 각인되거나 명명되지 않았다.

……이 표면적 차원에서 필립의 당당한 모습은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신대륙에 첫발을 들여놓았던 신성한 순간을 의미하며, 그가 내밀고 있는 문서는 식민지에서 영국의 법조직을 확립하는데 기여한 칙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알레고리적 차원에서 이 동상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즉 원주민들은 하단부에 숨어있는 듯 움추리고 있는데 반해, 필립은 상단부에 보란 듯이 서 있으며, 원주민들은 왜소한 반면 그의 모습은 장대하다. 또 원주민들의 별거벗음은 필립의 화려한 복장과 대조되고, 전자의 복수성은 후자의 단수성과 대조가 된다.

그 두 극단적인 체계 사이에 중간 단계가 개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겹의 고전적 세계이다. 그 고전적 세계는 한편으로는 유서깊은 유럽 문명의 한 혈통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반영인 당대 유럽에 관련된 것으로 묘사된다……소수의 특권을 부여받는 기념비에게만 표현 능력이 주어지는 그러한 역사내에서는 식민지 문화는 언제나 각인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채로 남기 마련이다.¹²⁾(Sleman, 1992, pp.56~58)

슬레만의 글을 비교적 길게 인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하나

12) 스티븐 슬레만, 「제국의 기념비들:탈식민적 글쓰기의 알레고리와 반언술행위」, 『외국문학』 (1992년 여름호), pp.56~58.

의 동상에 암시되어있는 의미들을 조금치도 놓치지 않고 예리한 안목으로 읽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르트의 글과 슬레만의 글은 둘 다 지금까지 문학의 정전에만 사용되어오던 진지하고 깊이있는 '모더니즘적 읽기'를 대중문화 텍스트에 적용해서도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가 된다.

4. '문화연구'와 영상매체

바로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문화연구'는 '수정된 모더니즘적 읽기'를 대중문화 매체인 영화 텍스트로 확장하고, 영화 속에서 당대의 문화를 읽어내려고 한다. 물론 영화는 당대의 문화를 반영하는데 너무 대중적이고 상업적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연구'는 그러한 견해 역시, 사실은 문화란 대중의 것이 아니고 소수 엘리트들의 것이라는 무의식적 편견의 소산이라고 지적한다. 즉 "대중적인 것"을 비하할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 사람들은 헐리웃 영화는 곧 상업영화이고, 비헐리웃 영화는 모두 예술영화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고급문화를 선호하는 모더니즘이 아직 강단과 문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1950년대까지의 일이다. 모더니즘이 밀려나고 대중문화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던 60년대 이후 그러한 단순한 이분법적 판단은 사라졌다. 다음 인용은 그 점을 확실하게 밝혀 주고 있다.

Before 1960 film criticism reproduced the split between popular and high culture as an opposition between Hollywood and 'art cinema'(typified by Kurosawa's *Rashomon*, which won the Venice Grand Prix in 1951) but during the mid-1950s a number of young French enthusiasts, including Jean-Luc Godard and François Truffaut, began to adapt the literary criterion of authorship as a way to discriminate value within American cinema on the basis of directors: Ford, Hawkes, Wells (great); Minnesli, Donen, Nicholas Ray (major) and so on.

1960년 이전의 영화비평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차이를 헐리웃 영화와 '예술영화'(1951년도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구로사와의 「라생문」으로 대표되는) 사이의 대립으로 재생산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부터는 장 뤽 고다르와 프랑수아 투뤼포 같은 많은 열성적인 사람들이 감독에 따라 미국영화의 가치에 차별을 두기위해 작품창조에 대한 문학적 기준을 영화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포드나 혹스나 웰스(위대한 경우), 그리고 미넬리나 도넨이나 레이(주요한 경우) 식으로 말이다.¹³⁾(Easthope, 1991, pp.141~142)

13) Easthope, 앞 책, pp.141~142.

더욱이 위 인용에서 언급된 감독들과 더불어, 최근 활발하게 좋은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일군의 헐리우드 감독들—예컨대 로만 폴란스키, 롤랑 조페, 로버트 알트만 등—을 생각하면 헐리우드 영화를 무조건 상업영화로 매도하는 것이 얼마나 성급하고 단순한 판단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영화의 상업성 여부를 떠나서, 사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 대한 영상매체의 영향은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이클 우드 Michael Wood는 “그 누구라도 영화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냥 집에 죽치고 앉아 아무것으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때까지 아무하고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이나 몰라도” “...it is hard to see how anyone could escape from the influence of the movies, unless they simply stayed home and talked to no one until they were past being influenced by anything.(p.193)”라고 말한다.¹⁴⁾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 영화나 텔레비전은 대학과 중고등학교에서 하나의 중요한 연구분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토니 베넷 Tony Bennett은 영상매체 연구와 문학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expansion of film and television studies over the past decades has been dramatic. Whether as separate areas of study or as components of courses in other subject disciplines, film and television now occupy a central place within the curricula of most institutions of higher and further education and are increasingly studied within secondary schools of all sorts and sixth-form college. Equally important, perhaps, the study of film and television has clearly served the connections which in the 50s and 60s bound it, in a relationship of tutelage, to the more established disciplines, particularly literature.

지난 수십년동안 영화와 텔레비전 연구의 확산은 극적이었다. 독립된 영역의 연구로서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 코스의 일부로서든지 간에, 영화와 텔레비전은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 교과과정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종류의 중고등학교와 전문학교에서도 점점 더 많이 교수되고 있다. 아마도 똑같이 중요한 것은, 영화와 텔레비전에 대한 연구가 50년대와 60년에 후견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더욱 확립된 분야—특히 문학—와 접목시켰던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연관의 역할을 명백히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¹⁵⁾(Toni Bennet, 1981, Preface)

‘문화연구’가 이렇게 특히 영화 텍스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영화가 문학과는 달리 작가의 절대적 권한을 초월하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이다. 종래의 문학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저자의 상상력과 창조력이었다. 따라서 독자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저자에게

14) Easthope, 앞 책, p.193.

15) Toni Bennet, *Popular Television and Film*(London: Open UP, 1981), Preface를 볼 것.

귀속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영화는 원작자, 시나리오 작가, 감독, 제작자, 배우, 촬영기사, 음향기사, 조명기사, 분장사, 세트기사, 스탠트맨들의 공동작업이며, 심지어는 흥행사들이나 홍보담당자들이나 극장주들까지도 그 작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¹⁶⁾ 그래서 '문화연구'는 독점을 통해 저자가 예술에 신비성을 부여하는 문학작품과는 달리, 영화는 공동작업을 통해 예술을 탈신비화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영화에 의하면, 예술이란 결국 인공물에 지나지 않으며 작품의 창조 역시 작품의 생산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산품은 결국 판매되고 구매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연구'의 그와같은 시각은 다분히 좌파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상업적인 것을 경멸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작품이 많이 팔리기만을 은근히 기대해온 고급 예술가들의 위선을 폭로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연구'가 분명 좌파적이면서도 정치적으로 경직되지 않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경우의 한 예는, 그것이 다국적 기업의 한 형태이자 자본주의 메커니즘의 대표적인 경우인 영화를 대중예술로 포용하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영화에 대한 '문화연구'의 보다 더 직접적인 관심은 영화가 당대의 문화와 사회상을 표출하는 텍스트라는 데에 있다. 그래서 '문화연구'는 영화를 하나의 사회적, 문화적 문헌으로 보고 그것을 해독한다. '문화연구' 학파는 아니지만 영국인 학자 마이클 우드 Michael Wood는 사회적 문헌으로서의 영화의 의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Films in our century serve one of the purposes that novels and magazines have always served. They are dossiers of instruction on our social life……The sociology of American movies thus becomes a question of the contribution of American movies to ideology in Althusser's meaning; of the extent to which the structures of moral and mental life in America, and elsewhere, correspond to structures to be found in films.

금세기의 영화는 소설과 잡지들이 언제나 해오던 목적들 중의 한가지를 맡게 되었다. 즉 영화는 우리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지침을 모아놓은 서류철이 된 것이다……그래서 미국영화의 사회학은 곧 미국영화가 알튀세가 말하는 이데올로기를 위해 어떻게 봉사하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즉 미국과 그외 다른 곳에서의 도덕적, 정신적 생활이 어떻게 영화에서 발견되는 구조와 일치하는가 하는 점에서 말이다.¹⁷⁾(Wood, 1975, pp.189, 192)

16)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 미국작가 Raymond Carver의 단편소설들을 모아 『숏컷 Shortcut』이라는 영화를 만든 Robert Altman감독은 “영화는 문학작품과 다르기 때문에 감독의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했다. 만일 그렇다면, 영화가 굳이 원작에 충실해야될 필요도 없어지는 셈이 된다.

17) Michael Wood, *America in the Movies*(New York: Columbia UP, 1975), p.189, 192.

역시 영국인 교수인 안토니 이스트호프는 『문학연구에서 문화연구로 *Literary into Cultural Studies*』라는 책에서 이언 플레밍 Ian Fleming이 쓰고 테렌스 영과 가이 해밀턴 등이 감독한 『제임스 본드』 영화들과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 『차이나 타운』을 각각 영국과 미국의 시대상과 문화를 표출해주고 있는 뛰어난 영화로 선정해 논의하고 있다. 이스트호프는 미국의 당대 이데올로기와 미국정치(예컨대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와 관련해 ‘차이나 타운’은 비교적 세밀히 분석하고 있으나, ‘제임스 본드’ 시리즈에 대해서는 주연배우 손 코너리의 대중적 외모와 억양 외에는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언 플레밍의 제임스 본드 시리즈야 말로, 당대 영국인들의 심리와 사회상을 드러내는 좋은 문화 텍스트가 된다.

제임스 본드 시리즈는 우선 동서 냉전시대의 분위기를 맨 먼저 포착해 보여주었던 작품으로서 이후 수많은 모방작들을 낳았다. 예컨대 플레밍의 소설과 테렌스 영의 영화에서 묘사되고 있는 전쟁은 더 이상 육탄이나 포탄으로 벌이는 2차대전식의 실제전쟁이 아니라, 정보와 두뇌 게임으로 이루어지는 첩보전과 스파이전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 속에서 독자들과 관객들은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전쟁을 목도하고 거기 매료되었던 것이다.

둘째, 제임스 본드 시리즈는 2차대전 이후 영국을 떠나 미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던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아직도 영국의 헤게모니를 믿었던 사람들의 꿈(혹은 착각)을 충족시켜주는 작품이었다. 이 작품에서 여왕폐하의 충실한 신하인 첩보원 제임스 본드는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들과 맞서 그들의 음모를 분쇄한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언제나 영국의 힘에 의해 세계질서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영국은 국제사회의 헤게모니를 급속도로 상실해가고 있었다. 이제 영국인들은 엄연하고도 냉혹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영국인들에게 제임스 본드 시리즈는 사라져가는 대영제국 최후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종의 향수와 회한으로 본드 시리즈를 감상했고, 대신 이 작품은 독자와 관객들에게 정신적 위로와 심리적 격려를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서민적인 이미지와 억양으로 대중에게 호소력을 가졌던 제임스 본드의 에피소드들은 60년대 이후 급속도로 확산된 대중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이스트호프의 지적대로, 영화에서 본드 역을 맡았던 배우 손 코너리의 스코틀랜드 억양, 킴어보이는 얼굴, 악마적인 눈썹, 그리고 무성한 가슴의 털 등은 비귀족적이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발산해 사람들로 하여금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 결과 본드 시리즈는 어렵지 않게 대중문화 속으로 스며 들어갔다.

‘문화연구’는 영화 외에도 텔레비전, 음악(대중가요), 그림(시사만화), 광고 같은 대중매체들도 역시 훌륭한 문화텍스트로 보고 분석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문화연구’는 기호학과 해석학의 전략을 차용하여 그것들 속에 내재해있는 이데올로기, 젠더, 심리, 그리고 타자에 대한 차별 등을 드러내준다.¹⁸⁾

18) 영화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On Screen, in Frame: Film and Ideology” in *Questions of Cinema*(Bloomington: Indiana UP, 1981), pp.1~18을 볼 것.